

'오마베' 정건주 "연하남의 직진 로맨스, 연구 많이 했죠"

정건주 '오마베' 뒷이야기...연기인생 본격적 시작

"다채로운 매력 더 많이 보여주는 배우 목표"

전작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하 '어하루')에서 풋풋한 학생들의 로맨스를 그려냈던 배우 정건주가 조금 더 성장해 돌아왔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를 통해였다. 극 중 '더 베이비' 광고팀 신입사원 최강 으뜸 역을 맡아 장하리(장나라 분)를 두고 한이상(고준 분) 윤재영(박병은 분)과 사각관계 로맨스를 그려낸 정건주는 어린 로맨스까지 완벽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떤 순간에서도 긍정 에너지를 놓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순수함으로 무장한 최강 으뜸을 연기하면서 정건주는 장나라 고준 박병은 등 남다른 연기력의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눈길을 끌었다. '오 마이 베이비'는 장하리와 한이상의 로맨스가 되면서 종영을 맞았지만 정건주는 연기인생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오 마이 베이비'가 종영한 후 뉴스1을 만난 정건주는 드라마를 통해 느끼게 된 감정과 이를 통해 겪은 고민의 흔적들을 털어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매력을 더 많이 보여주는 배우"가 목표라고 말하는 정건주에게서 '오 마이 베이비'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종영 소감을 전한다던.

▶일단 현장이 너무 재밌었다. 선배님들도 잘 챙겨주셨다. 그만큼 또 끝나서 아쉬운 작품이다. 케미도 정말 좋았다.

-또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전작

과 달리 이번에는 선배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는데.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됐다. 근데 선배님들이 그런 걸 먼저 캐치해서 저한테 편하게 해도 된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았다.

-풋풋한 사랑을 그린 '어하루'와 어린 사랑을 그린 '오 마이 베이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

▶좀 더 성숙한 사랑 같은 느낌이다.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는 연애일 수도 있다. '어하루' 때는 내 마음 가는대로 연애였다면 '오 마이 베이비' 속 어른들의 사랑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최강 으뜸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내려고 했나.

▶이 캐릭터는 정말 어디로 될지 모르는 캐릭터다. 그러다 보니깐 엉뚱미와 연하남이 가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심쿵 직진 로맨스에 중점을 맞췄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 연구해서 연기했다. 장하리와 의 버스정류장 신이 그런 지점에서 많이 연구했는데 시청자들이 좋아해주셨다.

-'오 마이 베이비'를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사실 저는 결혼과 육아가 와 닿지 않는 나이이다. 그런데 최강 으뜸을 연기하면서 결혼이 정말 사랑만으로 할 수 없고 현실이 크구나 느꼈다.

-실제 본인의 연애스타일은 어떤가.

▶저는 직진과는 많이 다르다. 아마 (실제로는) 한이상 스타일로 다가갔을 것 같다. 속으로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부터 생각하는 것 같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해 할 수도 있겠다. (웃음)

-최강 으뜸이 장하리랑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

▶8화 촬영할 때 알게 됐는데 내심 아쉬웠다. 최강 으뜸과 커플이 되면 (나한테는)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한이상 캐릭터도 좋은 캐릭터니깐 미련이 없다.

-선배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의 매력은 무엇이었나.

▶일단 제가 윤재영이었다면 그렇게 재밌게는 못 살렸을 것 같다. (박)병은 선배는 평소시에도 유쾌하신 분이어서 애드립을 정말 잘 치신다. 고준 선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하신다. 그렇게 두 형을 보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자신이 생각하는 '오 마이 베이비'의 명장면은 무엇인가.

▶저는 장하리가 초반에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는 말을 의사한테 듣고 공원에 앉아서 충격에 빠져있는 장면이다. 그걸 보고 정말 '장나라는 장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또 장하리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리얼했다. 정말 장나라 선배의 연기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했다.

-드라마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



▶시청률에 신경쓰기 보다는 주변의 반응이 좋다고 웰메이드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응원을 많이 들었다. 생각없이 봐도 재밌다는 응원이었다.

-마지막회까지 마친 뒤 드라마가 어떻게 느껴졌나.

▶마지막회의 내용은 촬영 끝나기 전에 1~2주전에 나왔다. 작가가 열릴 결말을 원하셨다. 어떻게 보면 힘든 트라우마나 고민들을 가진 분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준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연기도 재밌게 즐기면서 놀이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감독님도 재밌고 선배님도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재밌고 했는데 욕심이 많았다. 너무 잘하고 싶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감독님이 '준비하는 건 좋은데 즐기면서 촬영하자'는 주의여서 리허설도 많이 해보고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 어떤 연기에 또 도전해보고 싶나.

▶제가 전까지는 로맨스 연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성공적인 로맨스를 해보고 싶다. 영화 '노트북' 같은 로맨스도 찍어보고 싶고, 액션도 도전해보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나.

▶즐기면서 하는 건 평생하고 싶다. 재밌고 즐기게 하는 게 신념이다. 다음 작품에서는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저 배우는 다채로운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작품에서도 잘 녹아드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매력을 더 많이 보여주는 배우가 제 목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오 마이 베이비'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품을 보면서 혹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의 희망을 느껴셨다면 좋을 것 같다.

뉴스 1

웹드라마 '인서울2', JTBC 편성확정



플레이리스트 측은 8일 "인서울 시즌1에 이어 시즌2(본문 정수윤/ 연출 임지은)도 오는 9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10분부터 JTBC에서 방송이 시작된다"라며 "오는 9일에는 1회부터 4회, 16일에는 5회부터 8회, 23일에는 9회부터 12회까지 전편 방송된다"라고 밝혔다.

'인서울'은 서로를 인생 최고의 친구라고 자부했던 두 여자가 처음 느껴보는 관계의 관계를 통해 배워가는 여자들의 진짜 우

정 이야기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네이버 TV와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돼 방영을 이어오고 있다.

'인서울2'는 엄마로부터 독립한 주인공 강다미(민도희 분)의 리얼 캠퍼스 스토리를 비롯 절친 이하림(진예주 분)을 통해 여자들의 우정 민낯을 속속들이 그려내며 또 한 번 공감 웹드라마 신화를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서울2'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네이버TV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또 유튜브 및 네이버 V라이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통합본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하시3' 천안나 "학폭 사실 무근"...후배들 "증거 수집중"

"악의적인 목적 가지고 자극적·과장된 표현"

체널 A '하시그널3'에 출연 중인 천안나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혹을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천안나의 학교 후배들이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난 7일 한 의명의 소셜 미디어 앱 게시관에 '천안나 선배의 학교 후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천안나 선배는 어제(6일) 인스타그램에 후배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으며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글을 올렸다. 그 글을 보고 천안나 선배에게 당한 14, 15학년 단톡방이 생겼고 현재 천안나 선배에게 당한 일들을 모으고 있다. 여러 증언 중에 3개만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심한 증언들도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진작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 그

해명글만 올리지 않았어도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단체채팅방에서 나온 '증언'들을 공개했다.

천안나의 후배라는 한 누리꾼은 "2014년 천안나와 일부 학생들이 MT에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후배 몇몇을 심하게 혼냈고, 항공과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한 (후배) 학생이 그 일 이후 자퇴를 했다"며 "그때 일로 천안나 등은 1, 2, 3학년이 보는 앞에서 공개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학술제 때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던 천안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다른 누리꾼의 글들을 첨부했다.

앞서 '하시그널3' 포스터가 공개된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한 여성 출연자가 학교에서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여성 출연자가 천안나로 지목됐고, 당시 체널A 측은 "출연자들과 관련한 일각의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안나는 '하시그널3'가 종영이 다가오자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교 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천안나는 "(학교 폭력 의혹 게시물을 쓴) 글쓴이는 제 학교 후배라고 주장을 하지만 글의 내용 어디에도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그 글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저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쓰인 글"이라고 했다.

뉴스 1

지진희x김현주, JTBC '언더커버' 출연...4년만의 재회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

배우 지진희와 김현주가 JTBC 새 드라마 '언더커버' 캐스팅을 확정지었다.

JTBC 새 드라마 '언더커버' (극본 백철현 송자훈 정혜은/ 연출 송현욱) 측은 8일 "지진희와 김현주가 출연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동명의 BBC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언더커버'는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한정현(지진희 분)과 정의를 위해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인권 변호사 최연수(김현주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익을 명분으로 나라를 쥐고 흔들는 거대한 세력에 맞선 두 사람,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그릴 예정이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또 오해영' 등에서 다태연한 연출로 사



랑받은 송현욱 PD와 백철현 송자훈 정혜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지난 2016년 종영한 SBS 드라마 '해인있어요' 이후 4년 만에 재회한 지진희 김현주의 만남이 기대감을 자아낸다.

지진희는 극 중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안기부 요원 한정현으로 분한다.

경찰대 재학 중 안기부에 발탁

돼 남다른 순발력과 배짱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극비임무 중 만난 최연수와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던 한정현은 아내 최연수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르면서 비밀로 시작된 삶 속, 견장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200...5개월째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5개월째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1일 자)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MAP OF THE SOUL : 7)'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62위를 차지했다.

3월7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첫 진입한 후 19주

연속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메인 앨범 차트뿐만 아니라 '월드 앨범' 차트 1위,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 7위, '톱 앨범 세일즈' 및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 각 11위,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 14위,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는 해당 앨범 수록곡 '필터' (9위), '시차' (14위), '온' (ON, 19위) 등 다수의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2018년 8월 발매된 '러브 유어 셀프 결 '앤서' (LOVE YOURSELF 結 'Answer') 역시 '빌보드 200' 차트에 191위로 진입했으며, '월드 앨범' 차트 3위,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 25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19일 선공개된 일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 THE JOURNEY ~'의 타이틀곡 '스태이 골드' (Stay Gold)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 2위를 차지했다.